

사랑으로 진리를 외친다

-프란시스 쉐퍼의 시민불복종 운동을 생각하다-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목사)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다. 국가 권력의 혼돈 속에서 새로운 국가 권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특별히 훗날 민심의 영향으로 새롭게 구성될 정권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프란시스 쉐퍼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가르침에서 한 수 배우고자 한다.

시민불복종

국가가 정한 법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불복종하고 시정하는 것이 옳은가? 사실 불복종운동은 그 낱앙스가 진보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외침에 함께하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된 나라에서는 불복종 운동은 반정부가 아니라 반국가적인 모습으로까지 비쳐지곤 한다. 그래서 정치권은 끊임없이

“안보와 안정”을 내세우는 것이다. 사실상 이것이 한국의 현대 역사이다. 그러나 깨어있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불복종운동은 지속되어 오늘에서야 비로소 불복종운동은 시민운동으로 그 힘을 얻고 있다. 촛불 집회는 최근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이란?

시민불복종 운동은 사회적으로 강력한 효능을 지닌 형태로서 기존 사회질서를 따르지 않거나 선택적으로 따름으로써 공의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전략적인 비협조운동이라고 한다. 전략적인 비협조에 대한 정치적인 이론은, 어떤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회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정당성이 인정되는 권력 혹은 권위”라고 부른다.(스티븐 모트, 『복음과 새로운 사회』)

전략적인 비협조 이론에 의하면, 권력이 자유의사에 의해 부여되었다면 또한 자유의사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다. 프랑스의 16세기 수필가 보에띠는, 폭군이란 “당신이 그에게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것을 제외한다면” 그도 그 사회의 여타 일반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 했다. 웨퍼는 “만약 시민불복종과 같은 한계선이 없었다면 국가는 자율적이 되었을 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했다.(웨퍼, 『기독교와 정부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

그러므로 시민 불복종운동은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전략적인 비협조운동인 시민 불복종운동의 매력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시민 불복종운동의 목적은 어떤 법이 집행되는 것을 막고, 그 법의 부당성을 대중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국가 권력

국가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양심에

따라 감당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국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웨퍼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웨퍼는 1981년에 복음주의 교회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은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독재정부에 저항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한 『기독교 선언』(Christian Manifesto)(1981)이었다.

이 책에서 가장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한계선(Bottom Line)”이다. 웨퍼가 말하는 한계선은 시민 불복종을 의미한다. 웨퍼는 불법의 정부에 대하여 불복종 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가르침으로 보았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로마서 13장의 내용을 근거로 정부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로 인하여 정부의 불합리한 법 집행에 대해서도 교회는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매우 잘못되었다. 국가의 권위는 자율적인 권위가 아니고 대리자로서 권위다. 그리고 이 권위는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대리자로서의 권한을 월권하여 독재적이고 자율적인 기능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침묵하거나 복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¹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교회처럼 국가가 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날 때 국가에 불복종해 왔으며,

1. 로마 제국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굴에 던짐을 당했는가? 기독교 입장에서는 신앙적인 이유이나 로마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시민의 저항이며, 시민의 반역이었다.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은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신앙행위이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었다. 그러므로 소수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죄인이 몰려 감옥에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특히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곳마다 민중의 저항과 피 흘리는 거역이 있었다.²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사무엘 러더포드는 그의 책 『왕과 법』에서 17세기 특유의 “왕의 천부인권” 즉, 왕이나 국가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권한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왕의 말이 법이라는 상상을 공격하였다. 그는 모든 인간은 왕이라 할지라도 법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 위에 군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러더포드는 로마서 13장을 인용하여 국가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임으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국가행위는 불법이며 폭정이라고 주장한다. 러더포드의 관점은 분명하였다. 불법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불법의 정부를 용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시민불복종의 실제

국가의 불합리에 대하여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은 폭이 넓다. 단순히 항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무력 사용까지 허용한다. 쉐퍼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있어서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세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는 그저 항거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³ 둘째로는 가능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피한다. 셋째로 가능하다면 무력(Force)을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한다. 쉐퍼는 존 나스와 사무엘 러더포드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무력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쉐퍼가 생각하는 무력의 한 형태는 1차적으로 저항

의 모습으로서, 흔히 말하는 “비폭력 저항 운동”의 기능이다.⁴ 그러나 쉐퍼는 이에 더 나아가서 2차적인 무력의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도피할 길이나 저항할 길이 막혀 버릴 때 자기 방어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쉐퍼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시민 저항의 한계선(Bottom Lin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투쟁방법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해결책만 사용하고 정치적인 면으로 투쟁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이상주의에 치우치게 되는 반면, 기독교적인 해결책을 쓰지 않고 정치나 법적으로만 해보려는 것도 불완전하고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있어서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릇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해결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못 됩니다. 적합한 정도의 시민 저항의 한계선을 지키지 않을 때는 국가가 그 권위를 팽창시켜 성경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 쉐퍼, 『기독교선언』

쉐퍼는 시민 불복종에 대하여 이상주의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직접 시위의 현장에 있었다. 단순히 의견을 발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나갔다. 말만 하는 것은 결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러기에 작지만 큰일을 감당하였다.

2. 프란시스 쉐퍼, 「기독교 선언」, 107. 쉐퍼는 특별히 106-113에서 종교개혁을 위하여 신앙적인 불복과 시민의 저항이 유럽 전 지역에서 일어났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는 윌리엄 틴데일, 존 번연,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스위스, 제네바와 무력에 의해 종교개혁의 꿈이 무너진 헝가리, 프랑스, 스페인 등을 예로 들고 있다.
3. 프란시스 쉐퍼, 「기독교 선언(1982)」, 117. “죽어떨어 이가 정부 기관에 의하여 불 공경히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는 자기 지역위원을 만나거나 그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의원은 관계기관에 직접 접촉해서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말함.”

4. 프란시스 쉐퍼, 「기독교 선언(1982)」, 123. “쉐퍼는 이러한 비폭력 저항 운동의 한 형태를 들기를 “낙태에 사용되는 세금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시민 단체들이 행하였던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료 안내기운동과 동일한 것이다.”

사랑으로 진리를 외친 선지자

인간의 모든 구조가 완벽해지리라고 믿고 있지 않다. 완벽한 변화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현실적이다. 성경은 이상주의나, 낭만주의 그리고 현대의 사실주의와는 다른 인간의 딜레마에 대한 정직한 답을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진리이다. 그러기에 성경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만약 우리가 현실에서 인본주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고만 있다면 1년에 150만 명 이상이 되는 태아들이 죽어가는 그 아우성을 피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현실의 문제에 행동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되면 저절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은 몽상에 불과하다. 타락된 세상에서는 단지 이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인식이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성경적 입장을 갖는 동시에 모든 가능한 대안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안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은 허공에 맴도는 소리밖에 안된다. 웨퍼는 인본주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기독교적인 대안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완전하지 않지만 실제적인 치유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사회, 정치, 법, 문화, 환경의 문제에 참여하여 불의를 알리고 막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다. 그는 이렇게 외친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명령되어 있는 기독교적 대안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적절한 단계에서 정치적, 법적 수단으로서 시민 불복종의 한계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역시 성경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웨퍼, 『기독교와 정부 그리고 시민불복종 운동』

나가는 말

우리는 웨퍼를 통하여 중요한 가치를 배워야 한다. 그 첫째는 선지자적 현실주의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이다. 이것이 있어야 공허하지 않다.

두 번째는 성경을 현실의 책으로 삼는 것이다. 성경은 현실적인 책이며, 현실의 진리에 관한 책이다. 이것은 삶의 전체영역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이 있기에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악에 침묵하지 않는 자세다. 악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악에 편에서는 것은 악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보수와 진보의 편이 아니라 공의의 자리에 서야 한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세다. 사랑이 없는 선지자, 사랑이 없는 현실주의자 그것은 능력이 없다. 사랑이 식어지면 남는 것은 형식과 위선과 탐욕이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자이다.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참고도서 ∴

스티븐 모트, 『복음과 새로운 사회』

프란시스 웨퍼, 『기독교와 정부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

프란시스 웨퍼, 『기독교선언』

※ 본 내용은 지난 2017년 <기독교세계관학교>의 강의내용 일부이다.



글 | 신동식

총신대학교 신학 대학원을 졸업, 고양시 원당의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저서로는 『청년 내가 가야 할 길』(토라), 『그리스도인의 정치색깔』, 『기독교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교회회복-빠름에서 바름으로』(우리시대) 등이 있다.